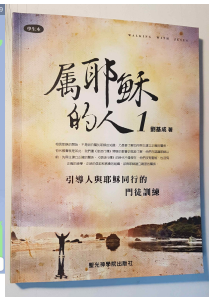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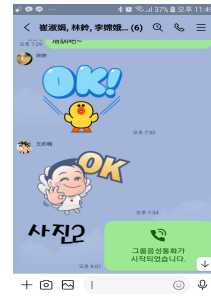




## 그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대만9호)

이섬김, 황사랑, 은우, 성안, 세희

30호 2021년 10월 15일



카톡 아이디	1002lhh	후원	KEB하나은행 9900-147-05200 예금주: KPM 이섬김
이메일	justfaith74@naver.com		

사진 1. 9월부터 비대면 줌(Zoom)으로 실시되고 있는 선교동원과정인 카이로스에서 과 소개(강의)를 하였습니다.

사진 2. 섬기는 대만 남향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매주 주일 저녁 8시부터 9시반까지 라인(한국의 카톡과 같음)으로 제자훈련(선한목자교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번역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의 백신접종률(2021년 10월 12일 기준 1차 58.7%, 2차 19%)이 낮아 이전의 자유스러운 상황으로는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하루 확진자는 국내에서 확진되는 인원이 몇 일을 연속해서 0명이 될 만큼 좋은 상황입니다. 강력한 경계등급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져서 금지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고 교회도 좌석간의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내 50명 이하로는 현장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는 마스크가 필수인 것은 물론이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몇 개월간의 시간들은 저를 무기력하게도 만들었고 반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적 발돋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 "너는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단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현장 사역과 대학사역이 멈추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장기화 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이 곳에 부르셨어요?" 라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금방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불렀다" 그 하나님의 음성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며 동일한 고민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공부를 준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겠니?" 저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선교사)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단다. 너는 니가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단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십자가로 증명했단다, 너의 속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 증거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제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보다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는지, 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요 선교사임에도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어울을 덮은 채로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깨달음의 시간 이후로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저를 위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음에 감격하게 됩니다.

####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4:17)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저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불러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에 게으른 저를 보는 것입니다, 몇 개월간 교회의 현장 사역도 하지 못하고 대학교 사역도 하지 못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저를 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 지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웃들을 초대해서 커피라도 대접하면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한 참 전부터 있었지만 시작하지 않는 저를 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전화로라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지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넘겨 버리는 저를 봅니다,

몇일 전 저희 교회 예배 사회를 맡으면서 그 날 본문말씀을 예배 전날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가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눈 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저희 남향교회와 이웃 충효교회에서 각각 교회에서 두 달에 한번씩 설교를 합니다,

매주 주일저녁 8시에서 9시반 정도까지 남향교회 성도님들과 라인(한국 카톡과 같은 sns)으로 제자훈련을 인도합니다, 담임목사님을 포함해서 4명의 성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데 5-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석하는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사역자로서의 기쁨을 느낍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제자훈련과정이고 제가 추천한 교재(한국 선한목자교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번역본)로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는 제가 인도하고 그 다음 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선교동원과정인 카이로스를 줌(Zoom)으로 참여하고 수료했는데 9월부터 동일하게 줌으로 실시하는 카이로스 과정에 스텝으로 섬기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과 소개(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진행하는 카이로스를 섬기고 있지만 기획 되는데로 중국어로 진행되는 카이로스도 참가하려고 합니다, 카이로스를 통해 대만에서도 선교사들을 일으키는데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사역은 학교가 개학은 했지만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 늦어져 저번 학기까지 함께 기도회를 해 왔던 교수님과 인터넷을 통한 라인으로 기도회를 시작했고 조만간 대학교를 방문해서 대면 기도회를 하고 상황을 봐서 한국어반과 헬스장사역 그리고 대학교내 노방전도를 시작하

려고 합니다.

#### 저희 가족은...

전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체장암 수술 이후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데 2차 항암을 체력적인 문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최근 검사결과 이전보다 암의 크기가 더 커 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항암치료가 너무 힘이 들어 다시 받기를 어려워하시다가 최근 항암치료를 조금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 받고 다시 한번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도록 무엇보다도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첫째 아이 은우가 대학 수시를 치르기 위해 7월말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거주와 식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은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아내 황사랑선교사가 함께 귀국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속에 대학접수를 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 황사랑선교사는 대만 타이베이 사모모임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섬기는 사모님들의 기도회 모임과 몇분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자녀들을 위한 소그룹 기도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는 황선교사가 먼저 성령충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황사랑선교사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허리와 골반을 검사했는데 허리에 측만이 있고 골반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남은 한달 정도의 기간동안 병원 통원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성안이는 내년 검정고시와 대학 수시를 위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과 영어를 많이 힘들어 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내 세희는 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중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학교에서 혼자 외톨이처럼 지내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어도 학습을 따라가기에 많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자녀들이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해 주십시오!!!

-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즉시 순종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 섬기는 남향교회와 중화과학대학에서 감당하는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무장되며 복음의 일군으로 세워지도록
- 카이로스 훈련의 스텝으로 더 잘 훈련되어져서 한국과 대만에서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도록
- 황선교사가 성령충만함으로 사모회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항암치료를 잘 받게 하시며 호전이 있도록,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영혼 구원을 얻으시도록
- 황사랑선교사의 허리측만과 골반염증이 치료되도록
- 큰아이의 대학진학과 둘째아이의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막내가 갓 시작한 대만 중학교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게 하시고 학업을 조금씩 따라가도록,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